

카세트 곁들인 무당이 쓴 무당소설

정강우 지음 「무당」



무당이 쓴 '무당소설'이라는 점 외에도 「무당」은 저자 정강우씨 육성으로 재현한 '굿판의 소리'를 담은 두 개의 카세트테이프를 '부록'으로 첨부해 눈길을 끈다. 테이프에 수록된 '소리'들은 모두 본문 중에서 지문으로 처리된 것들로 시청각적 '책읽기'가 가능하다. 더우기 귀로 읽는 책인 '오디오북'의 흐름으로 지적되던 '높은 가격'의 문제를 바리다매 전략으로 돌파하려는 듯, 책과 테이프가 도합 9500원으로 책정돼 화제성을 증폭시킨다.

일제말기부터 제3공화국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무당이 받아온 수난의 역사를 형상화한 장편소설 「무당」의 절발 가량은 칠성풀이, 성조풀이, 초혼가, 액거리 등 '소리'들로 채워진다. 저자는 그래서 '소리 소설'로 명명하는바, 이 소설의 문맥 속에서 '부분의 독자성'을 가진 민중시 내지 사실로 기능하여

전체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무당의 수난사가 곧 민족과 문화의 수난사라 보는 정강우씨는, 무당답게도, 화자의 시점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순녀도 되고 곰보당골, 동철이, 용천덕, 삐죽새, 심지어 귀동이와 신형사 등의 인물의 입을 빌어 삶의 애환과 염원을 풀어놓는다. 굿판에서 같고 닮은 입담과 재담이 소설이라는 글발의 형식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가는지 살피는 것 또한 「무당」이 안겨주는 화제거리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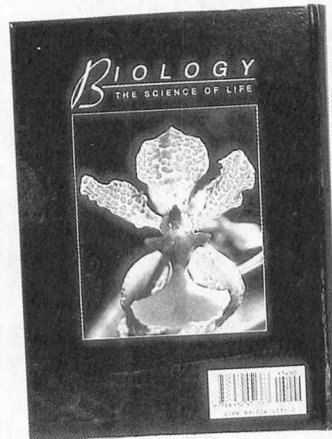
저자 정씨는 현재 군산 용왕굿 기능보유자이며 '황토현 문화 연구회' 지도위원이기도 하다. 70년대 초 재인이나 점쟁이로 전락한 무당의 세계를 홀연히 벗어나, '지리산 빨치산 씻김굿' '갑오동학혁명군씻김굿' 등의 판을 벌여 굿이 본래 갖던 '해원사상'을 실천에 옮긴 그의 이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책의 외곽을 둘러싼 만발한 화제성 이외에 이 소설을 소설이게끔 하는 작가의식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녀라는 한 무당의 생애를 빗대어 과거 민중의 힘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던 무당 本業을 밝혀냄과 동시에, 일제 이후 외세 문화의 드센 유입과 사회·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판을 치게 되면서 소외의 길로 들었던 무속의 수난사를 파헤치는 과정"이라는 저자의 변이 虛辭가 아닌 무게 실린 발언이기 때문이다.

소설 자체의 흥미와 함께 소설의 출판에서 이해적이라 할 만한 테이프 부록은 우리 소설사에서 특이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평을 듣는다.

현암사 / A5신 / 296면 / 9500원

세계적 권위의 생물학 대학교재

로버트 윌리스 외 지음 「생물학」



대학 생물학 교재로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플로리다대 로버트 윌리스 교수 외 지음 「BIOLOGY」의 한국어판이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됐다. 최근의 연구업적까지를 수용해 끊임없이 개정·증보를 거듭하는 원서의 '내용의 질'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생물학」은, 거기에 보태어 고급 코트지, 원색 인쇄, 호화 양장을 사용해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낸 생물학 교재의 '결정판'이라는 평을 듣는다.

특히 대표역자 이광웅 서울대 교수가 역자 서문에서 밝히듯, 원저자의 의도의 핵심을 짚어내면서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고치는 일련의 번역과정에 의해 '예비전공자'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걸림돌 없이 다가갈 수 있게끔 배려된 점이 큰 특색으로 꼽힌다. 일례로

진화론을 설명하는 첫구절은 "토끼가 없다"이다. 그 의문을 단서로 하여 종래의 '인간학'을 전복시키게 된 다윈의 진화론이 설명된다. "토끼는 헤엄쳐서 대서양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바, 그것은 "E=mc²과 더불어 서양문화의 의식에 새겨질 어구"라고 진술된다.

역자·저자 서문에서 자랑하는 이 책의 특장은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주제, 디자인과 그림, 자료의 갱신 등이 그것. "생물학은 생명의 과학"이라는 정의 아래 '생명의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만한 최근의 이론들이 기존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서술된다. 독자도 하여금 자학·자습할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고 미려한 원색그림을 대량 삽입해 본문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리고 생물학의 모든 분야, 특히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분야의 새롭고 확실한 최신자료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분자와 세포, 분자생물학과 유전, 진화, 미생물과 균류, 식물, 동물, 행동과 생태 등 7부 49장으로 구성된 「생물학」을 번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역자들을 "원서를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개된 개념이 불분명하게 파악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된 고학년 교과목의 이해마저 불확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을유문화사 / B4 / 1076면 / 29000원

서양문예사조

신광균의 7인 공편저, 신국판, 392면, 7,000원

본서의 서술방향은 기존의 문예사조를 단지 시대별로 소개함에 그치지 않고 각 사조의 문학원리에 관심을 두고 작품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은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프랑스 문학이 르네상스 문화의 전수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대문학은 물론 현대문학의 위치를 가름할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포함한 것이 강점이다.

현대시론

김영철 저, 신국판, 360면, 7,500원

이 책의 집필은 시를 좋아하고, 시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이론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서구이론을 우리의 문학풍토에 맞게, 즉 서구이론의 생경함을 벗어나 우리 시의 해석과 이해에 적합한 이론의 수용과 적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품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위한 이론보다는 작품이 전제된 이론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필자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원예학원론

김종천 저, 신국판, 양장, 322면, 8,500원

원예작물은 종류도 많고 또 모두가 집약적인 관리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한편 수익성도 높은 작물이다. 재배 기술면에서 일반작물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술향상은 튼튼한 기초지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수익증대와 직결된다.

이 책은 원예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학문적인 기초지식과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게 하였다.

林堇(하야시 다다쓰) 秘密回顧錄

A.M.Pooley 역음 신복룡·나홍주 역주, 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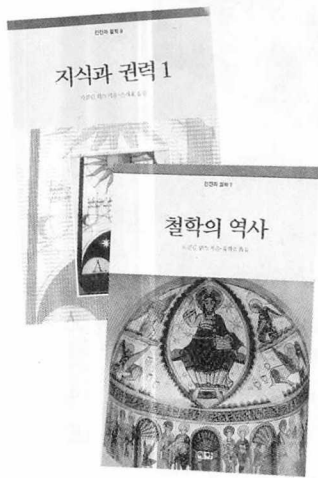
이제까지 대한제국멸망사의 외교적 배경은 1905년의 태프트-桂太郎 密約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록은 일본의 조선병합의 꿈이 이미 對英의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일 동맹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영·일 동맹의 체결 당사자였던 林堇의 말을 통해서 당시 국제 사회에서 조선이 어떻게 요리되었는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경북대학교출판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도서주문 450-3893 FAX: 457-7202

프랑스 고교생들의 철학교과서

예하 펄냄 '인간과 철학' 시리즈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건강한 가치관의 정립”을 의도하여 ‘인간과 철학’ 총서를 기획, 이미 6권을 발간한 바 있는 도서출판 예하에서 4권을 더 펴냈다. 총서 제7~11권인 「철학의 역사」 「인간과 문화」 「지식과 권력」(1, 2)이 그들로서, 89년도에 출간됐던 제1차분 「인간과 노동」 「인간과 권력」 「인간과 자유」 「인간과 욕망」 「인간과 논리」 「인간과 언어예술」에 잇따른 것.

이 총서는 필수적으로 철학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프랑스 고교생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 준비용(바칼로레아 시리즈) 책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고교 철학」 「독서」 교과서와 비교하면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케 하여 가슴 쓰리게 만드는 바가 적지 않다.

제7권 「철학의 역사」(자클린 뤼스 지음, 윤학로 옮김)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20세

기 실존주의 철학까지를 훑고 있다. 철학의 역사가 진보의 역사는 아니라는 점, 내일의 철학은 한 시대의 모든 인식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관을 가진 철학일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인문과학은 객관적인지, 무의식은 운명인지, 역사는 소설에 불과한지 등 인간의 위상을 묻는 본질적인 질문을 무수히 제기한 뒤, 그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분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인간과 문화」(질 리발랑 지음, 홍혜리나 옮김)는 인류의 정신들이 고뇌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지식과 과학의 사회적·역사적 속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지식과 권력 1」(자클린 뤼스 지음, 은재호 옮김)은 지식과 과학이란 진리를 전달해주는 서술체계가 아니라 권력의 한 도구로 기능하는 조작된 관념이라는 결론을 얻게끔 서술된다. 「지식과 권력 2」(자클린 뤼스 지음, 황수원 옮김)는 고대 형이상학에서부터 현대 과학철학까지의 인식론의 주요 논점을 논쟁적으로 서술한다.

역자 중 한 명인 윤학로씨(강원대 불문과 교수)는 철학의 중요함과 사유하기의 중요함을 역자서문에서 밝히고, 이 시리즈가 강단의 교재용이 아닌 ‘거리의 철학자’를 위한 책임을 강조한다. 사륙판 작은 사이즈인 이 시리즈들은 전철이나 차중에서 ‘철학하기’를 독자에게 권하고 있는 것 같다.

예하/B5/각 150면 내외/각 2500원

非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의 군대이야기

김환태 지음 「육두품 소령의 군대이야기」



「인생성공」(어문각) 등이 그것들이다.

예비역 육군 소령인 김환태씨의 「육두품 소령의 군대 이야기」는 특히 ‘성골’ 혹은 ‘진골’로 불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저작이 아닌, ‘육두품’이라 통칭되는 비육사 출신의 책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다. 제3사관학교 출신인 저자의 시각은 ‘민간인’과 ‘성골 혹은 진골’의 그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어 책 읽기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그 ‘애정어린 비판’의 첫번째 과녁은 萬事라는 人事문제. 육군장교의 95%를 차지하는 ‘육두품’은 그 ‘출신성분’ 때문에 진급 등 여러 대우면에서 엄청난 후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인사관행은 최근 진급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3사출신 초급장교 130여명이 헌법소원을 낸 사건으로 표출됐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이어서 그는 “군의 인화단결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애정을 표한다. 그밖에 효율적인 국방예산의 집행과 주먹구구식의 부대경영의 혁신방안들에 대해서도 “충언”을 아끼지 않는다.

육두품의 균형감각은 딱딱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비판’으로, 군대 내에서의 에피소드와 해프닝에 대해서는 풍자 대신 「동작그만」이나 「우정의 무대」 수위의 유모어로 그려낸다. 저자의 오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군대이야기이므로 그 유모어에서도, 그러나, 뱃속에서 우리나라의 웃음을 유발시키곤 한다.

쟁기/A5신/각 322, 328면/각 5000원

소설의 경우 서정인씨의 「후송」, 이문열씨의 「새하곡」, 복거일씨의 「높은 산 낮은 이야기」, 이승우씨의 「가시나무 그늘」, 김태연씨의 「폐쇄병동」, 하창수씨의 「젊은날은 없다」 등 군대체험을 한 작가라면 한번쯤은 군이라는 상황을 소설적 공간으로 끌어들이곤 한다. 대개의 경우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상황을 환기시키는 무대로 군대가 설정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와같은 전문문인들의 문제의식과는 상이하지만, 군인 출신 인사의 저작물도 줄을 이어 발간되고 있다.

「전쟁사」 등 학술적 연구업적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군 생활의 이모저모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육사 22기 출신의 예비역 대령인 지만원씨의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와 「땀」(전원출판사), 현역장군인 김택수씨의

I. D. K 시리즈 컬러예화집

짧다! 쉽다! 깊다! 많다!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 「명심보감」
진실의 광장에서 나눌
대화를 준비하세요!
삶의 지혜와 감동의
寸鐵殺人의 메시지



도서출판
대림기획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TEL : (02) 268-4902
FAX : (02) 277-6946

사랑을 배우는 동화

오늘밤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다, 애야」

